

## 높임말을 다시 생각한다: 이른바 ‘사물 존대’ 현상에 대한 상념

목정수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서론

최근 국어학계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른바 ‘사물 존대’ 또는 ‘백화점식 존대’ 현상을 두고, 정문 판정 시비에서부터 이론적 설명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언어학적 논쟁이 있었다. 또한 학계 외부적으로도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 정책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시-’의 규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실천적으로 국민들의 언어 사용을 일일이 국가 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긴 하지만, 국어 사용자로서의 일반 국민들이 ‘사물 존대’ 현상을 목격하면서 우리의 언어 사용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국어학자들은 물론이고 언어 정책의 주무 부서인 국립국어원이 오·남용 사례를 규제하고 계도하여 국민들의 언어 의식을 고양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음이 최근 백화점, 커피숍 등 서비스업계의 오프라인 환경에서 그리고 이메일, 누리소통망서비스(SNS), 홈쇼핑 등의 온라인 환경에서 흔히 듣고 볼 수 있는 이른바 ‘사물 존대’ 현상의 예들이다.

(1) 가.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나. 이 옷이 훨씬 잘 어울리세요.

다. 모두 값이 3만 원이십니다.

라. 이쪽으로 누우실게요.

(2) 가. 그럼, 선생님 즐거운 주말 되세요.

나. 주문 폭주로 배송 시일이 소요되는 상품이세요.

여기서 ‘주문하신 커피’, ‘이 옷이’, ‘값이’, ‘즐거운 주말’, ‘상품’ 성분의 통사적 기능, 즉 주어나 아니냐의 문제도 국어학의 큰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우선 표면적으로 이들을 주어로 분석하는 시각에서는 소위 ‘주체 존대’ 선어 말머리로 규정되어 있는 ‘-시-’와의 호응이 이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의 문장을 사용한 서비스업계의 종사자들의 발화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의 의식을 조사한 것을 봐도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sup> 게다가 발화 당사자들도 이런 유의 문장들이 대체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고객들을 대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일종의 압력에 의해 소위 ‘백화점식 존대’를 쓰게 된다는 응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국립국어원에서는 해당 서비스업계에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몇몇 기업체에서는 자정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기도 하였다. 이렇듯 ‘사물 존대’ 현상이 계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

1) 사물 존칭의 경우 긍정적인 인식이 부정적 인식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부적절한 사물 존칭은 향후 홍보를 통해 사용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고, 사물 존칭에 대한 표현은 자연스럽게(15.8%)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으로 느낀다(22.4%)는 응답률이 낮아 사물 존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립국어원, 201530-31).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면, 일상생활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사물 존칭 표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느껴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15.8%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과반(64.7%)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을 보였고, 한편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22.4%로 나타났지만 55.6%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립국어원, 2015:79).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이에 본고에서는 특이한 현상으로 보이는 ‘-시-’와 관련된 오·남용의 사례를 단계별로 살펴 ‘-시-’의 기본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와 그렇지 않고 국어 문법의 틀에서 잘못 오·남용되고 있는 ‘-시-’의 용법을 구분해 보고자 한다. 최대한 국어학적으로 일관된 설명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하나의 대안으로서 ‘사물 존대’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핵심 내용은 대부분의 ‘사물 존대’ 현상은 언어 환경 변화에 따라 언중들이 ‘-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자연스러운 사회문화적 언어 현상으로서, 그리 우려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sup>2)</sup>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우려하고 계도할 대상의 오·남용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는 차원을 달리하는 현상으로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극적인 국어 교육이나 홍보를 통하여 국민들의 언어 의식을 높이고 언어 사용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 2. 도대체 ‘-시-’는 무엇이기에 문제가 되는가?

### 2.1. 쟁점의 근원

‘사물 존대’ 현상이라는 문제는 그 발단이 위의 (1)과 (2)의 예문에 보이는 ‘-시-’의 용법이 일반적으로 국어 문법에서 제시된 용법과 차이가 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주체 존대’의 선어말어미로써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어학자들에게 주어진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과 (2)의 예문의 ‘-시-’의 용법을 ‘-시-’ 자체의 기능 변화로 설명할

2) 최근 라보프의 사회언어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실제 현장에서 ‘사물 존대’의 ‘-시-’의 사용 양상을 직접 조사한 김은혜(2016)에 따르면, 백화점 판매원들의 발화에서 오·남용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그 빈도가 그리 높지 않게 발생했고, 대형 마트나 재래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것인가, 아니면 ‘-시-’ 자체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을 것인가 하는 국어학적 논쟁이 불붙는 것이다. 전자의 방법을 취한 것으로는 임동훈(2000, 2011)과 김영일(2016)의 ‘청자 존대설’과 이정복(2010)의 ‘상황 주체 존대설’이 있다. 후자의 입장에서 제시된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목정수(2013)이 있다. 이를 ‘(진성) 주어 존대설’로 부르기로 하자.

목정수(2013)은 우선 ‘청자 존대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국어 전통 문법에서 ‘-시-’를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라고 규정할 때, 그 ‘주체’의 개념이 분명치 않다고 비판하고 ‘-시-’는 새롭게 규정된 주체, 즉 주어 존대 요소로서의 기능 변화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목정수(2014b)에서는 결론적으로 ‘-시-’는 ‘주어 존대’ 요소로서의 대명사 인칭 단계의 인칭 표지로서, 인칭의 구분의 시각에서 말하자면, 비(非)일인칭 주어 지시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 (3) 가. 목정수 교수님은 참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다. (3인칭)  
 나. 선생님은 왜 언어학을 하십니까? (2인칭)  
 다. \*저는 언어학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1인칭)

## 2.2. 직접 존대의 ‘-시-’와 간접 존대의 ‘-시-’, 그 허구성

국어학계에서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 ‘-시-’가 자연스럽게 연결된 구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장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다.

- (4) 가. 할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 할아버지는 귀가 크시다.

물론, 이러한 자연스러운 ‘-시-’의 용법에 대해서도 (4가)의 경우에는 ‘-시-’가 주어인 ‘할아버지께서’를 존대하기 때문에 ‘직접 존대’라고 하고, (4나)의 경우에는 ‘-시-’가 주어인 ‘귀가’가 아닌 ‘할아버지는’을 존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간접 존대’의 ‘-시-’로 나누어 보고 있다. 이것이 전통 문법이나 학교 문법에서 정설로 채택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연어 구성이나 관용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전개된다.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아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표준국어대사전》)를 표현하는 ‘발(이) 넓다’나 ‘기세가 꺾여 풀이 죽다’(《연세사전》 271쪽)를 표현하는 ‘기(가) 죽다’에서도 ‘-시-’의 쓰임은 주체/주어인 ‘할아버지는/할아버지께서는’이라는 성분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도 말하자면 ‘간접 존대’에 해당한다.

(5) 가. 할아버지는 발이 넓으시다.

나. 할아버지께서는 기가 죽으셨다.

이에 대해서 목정수(2013)에서는 의문을 제기하였고, 서술절을 주장하는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서술절 개념의 부당성을 제시한 목정수(2014a)에서는 선어말어미 ‘-시-’를 직접 존대와 간접 존대로 나누는 것 자체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요체는 위 문장에서 ‘-시-’는 ‘할아버지’가 문장의 일정한 자리에 놓였을 때에만 그와 호응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자리는 공히 ‘주어’ 자리로 일반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문법의 ‘간접 존대’라는 개념은 (4나)의 ‘귀가’나 (5가, 나)의 ‘발이’와 ‘기가’를 주어로 보았기 때문에 나온 개념인데, 이 경우도 아직까지 ‘할아버지’가 아닌 제2명사구가 주어라는 것이 분명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간접 존대설을 무조건 수용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시-’의 난제를 풀기 위해 필자가 고안한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어떤 성분이 주어냐 아니냐 하는 까다로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국어

화자라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직관에 더욱 충실해 보자는 것이다. 위 (4가, 나)와 (5가, 나)에서 문장의 구조를 어떻게 분석하든지 간에 ‘-시-’의 사용에 관여적인 것은 ‘할아버지’라는 성분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주체’로 부르든 ‘주어’로 부르든 ‘대주어’로 부르든 상관없이,<sup>3)</sup> 그 성분이 ‘-시-’와 호응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 ‘-시-’의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시-’에 의해 존대 대상이 되는 요소를 그 성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문법적 주어로 보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에 착안하면, 결론은 의외로 간단하게 도출할 수 있다. 서론에서 ‘사물 존대’의 예로 제시된 것과 학교 문법에서 ‘-시-’의 올바른 사용으로 인정한 ‘간접 존대’의 예를 비교해 보면 되는 것이다. 그 비교 결과에 따라, ‘-시-’의 기능 변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차이가 인정된다면, 임동훈(2011)에서 제시한 ‘청자 존대설’이나 이정복(2006)에서 제시한 ‘상황 주체 존대설’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차이가 없다면, 그냥 ‘-시-’는 ‘주체/주어 존대’로서의 기능으로 머물기 때문에 ‘(진성) 주어 존대설’이 더 큰 설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서론에서 제시한 ‘사물 존대’의 문제아들 (6)과 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다음의 모범생들 (7)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우리는 이들을 기본적으로 평행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3) ‘-시-’가 주제어와 일치한다고 하여도 주어 성분이 주제화된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사실은 ‘-시-’가 원래 주어와 일치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 (1) 가. 김 선생님은 시를 좋아하신다. (김 선생님이 → 김 선생님은)  
나. \*김 선생님은 내 동생이 좋아하신다. (김 선생님을 → 김 선생님은)
- (2) 가. 나는 김 선생님이 맘에 든다.  
나. \*김 선생님이 맘에 드시지만 그의 수업은 듣지 않을 것이다.

(6) 가.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나. 이 옷이 훨씬 잘 어울리세요.

다. 모두 값이 3만 원이십니다.

라. 손님, 주문하신 게 김밥이세요?

마. 이쪽으로 누우실게요.

(7) 가.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나. 선생님, 힘이 드세요?

다. 선생님, 머리가 많이 빠지셨네요.

라. 선생님, 자제분이 몇이나 되세요?

마. 선생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시죠?

먼저 위 (7)의 문장을 보면, 문장의 패턴에 관계없이 ‘-시-’는 청자이면서 말의 대상(délocuté)인 ‘선생님’ 때문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성분이 가리키는 존재를 전체 문장의 주어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보면, (6)에서도 ‘-시-’는 청자이면서 말의 대상(délocuté)인 ‘손님’ 때문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성분이 가리키는 존재를 전체 문장의 주어로 보면, (6)은 다음과 같은 심층 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8) 가. 손님, (손님은)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나. 손님, (손님은) 이 옷이 훨씬 잘 어울리세요.

다. 손님, (손님은) 모두 값이 3만 원이십니다.

라. 손님, (손님은) 주문하신 게 김밥이세요?

마. 손님, (손님은) 이쪽으로 누우실게요.

극단적으로 (6마)에서도 ‘-시-’가 일인칭 주어와 관계가 있는 ‘-을게요’와 결합하여 1인칭 대명사 ‘나’를 높이고 있는 역할까지 한다고 기술하고 있는 논의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시-’는 여전히 청자인 ‘손님’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이 문장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겠-’의 용법을 활용한 명령의 간접화행보다도 더 간접적인 새로운 형태의 간접화행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일인칭 어미인 ‘-을게요’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화자의 약속의 기능을 청자의 입장에서 함으로써 명령의 직접성을 회피하고자 한 전략이 손님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전략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최근 서비스업계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짝의 명령의 간접성 정도를 비교해 보자.

- (9) 가. 손님, 이쪽으로 누우세요.  
 나. 손님, 이쪽으로 누우시겠습니다.  
 다. 손님, 이쪽으로 누우실게요.

만약에 임동훈(2011)이나 김영일(2016)의 주장대로 ‘-시-’의 청자 존대 기능으로의 문법화 현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명시할 점이 있다. 그것은 존대의 대상이 되는 ‘청자’가 통사적으로 ‘주어’ 자리에 상정되었을 때만 ‘-시-’와의 호응/일치가 일어난다는 점이다(목정수, 2013). 다음과 같이 ‘청자’가 주어 이외의 자리에 놓일 때는 당연히 ‘-시-’가 나타나지 않는다.

- (10) 가.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도와 드릴까요/\*도와 드리실까요?  
 나. 선생님, 숙제를 언제까지 (선생님께) 제출하면 되나요/\*제출하시면 되시나요?

그리고 ‘압존법’과 관련해서도 ‘청자 존대’의 ‘-시-’는 나타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시-’는 주체/주어 존대의 기능이 일차적인

라는 점을 다시금 입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압존법(壓尊法)’<sup>4)</sup>에 따르면, 예를 들어 아들인 ‘내’가 ‘할아버지’를 청자로 두고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경우, ‘-시-’를 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러한 압존법의 의식이 거의 사라졌다 할 정도로 필자를 포함하여 일반인들은 그 쓰임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것이 현실일 것이다. 따라서 다음 문장의 ‘-시-’는 ‘할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와 연관되어 해석된다.

(11) 할아버지, 아버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임동훈(2011)의 ‘청자 존대설’에 따라 ‘-시-’가 청자 존대의 기능을 한다면, 다음 문장에서 ‘-시-’는 청자인 ‘할아버지’와 연관 해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2) 할아버지, 아버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시-’가 화자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할 당사자이자 청자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것으로 기능한다는 해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청자인 ‘할아버지’에 대한 존대는 ‘-어요/습니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동사 ‘들어오다’에 결합한 ‘-시-’는 그 행위의 주체인 ‘아버지’와 호응/일치하는 것으로만 해석된다. 따라서 ‘-시-’가 청자 존대 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청자 존대설’도 그 청자가 문장의 주체/주어 자리와 겹칠 경우에 한한다는, 즉 주어로서의 청자와만 호응한다는 것으로 수정돼야 올바른 기술이 된다 할 것이다.

4) 압존법은 문장의 주체가 화자보다는 높지만 청자보다는 낮아, 그 주체를 높이지 못하는 어법을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

### 3. 일반 존대와 과잉 존대의 경계

2장에서 우리는 이른바 ‘사물 존대’라는 현상이 구조적으로 ‘사물’을 존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대의 대상으로 상위의 주어 위치에 놓이는 ‘주체’를 존대하는 것임을 밝혀, 이것이 단순한 오·남용의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는 ‘-시-’의 오용이 아니라는 셈인데, 왜 이런 사용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이상한 문장으로 여기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sup>5)</sup> 필자는 그 이유를 ‘-시-’의 기능 변화에서 찾지 않고, 우리의 언어 환경 변화에서 찾고자 한다.<sup>6)</sup> 즉, ‘-시-’는 주체/주어 존대 요소로서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언어 환경이 화자와 청자가 마주 보고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언어 환경이 물리적으로 말은 화자가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는 말을 듣는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의식하면서 말을 하는 또는 대화를 나누는 매체 환경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물 존대’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일반화하면, ‘1인칭의 음각화(陰刻化)’ 또는 ‘2인칭의 양각화(陽刻化)’ 현상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언어학자 크리스털(David Crystal)이 《언어 혁명》(2009)에서 언급했듯이, 21세기는 ‘인터넷을 통한 언어 사용의 혁명’이 일어난 시기이다. 특히, 인터넷 채팅, 누리소통망서비스(SNS)는 문어적 구어, 구어적 문어적

---

5) 국민들이 바르게 쓰고 있지 못하는 모습(1순위 기준)으로는 ‘말할 때 내용 연결 미흡’이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맞춤법과 띄어쓰기 부정확’(20.7%), ‘부정확한 발음이나 억양’(16.7%) 등이 뒤를 이었고, 한편 1, 2순위로 택하는 항목에서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부정확’(44.8%), ‘말하거나 글로 쓸 때 높임말 사용 부적절’(34.2%), ‘부정확한 발음이나 억양’(31.9%) 등의 순이었다(국립국어원, 201561).(밑줄은 필자가 친.)

6) 언어 조사할 때의 환경의 변화도 ‘사물 존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반영되었다고 본다. 기령, 피조사인이 접원이 고객을 앞에 두고 발화하는 상황을 고려한 상태에서 ‘커피 나오셨습니다’에 대해 판단하여 응답하는 것과 피조사인이 그러한 문맥/상황을 떠나 단순히 ‘커피가 나오셨습니다’라는 발화를 두고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응답하는 것 사이에는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럼 문어와 구어의 이분법을 뛰어넘는 언어의 하이브리드 현상을 낳았다. 인터넷 언어 사용이 중심이 되면서 일반적인 언어 사용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다. 이정복(2017)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일상적 활용으로 인터넷, 특히 누리소통망서비스(SNS)에 접속하여 읽고 쓰는 시간이 더 길어져서 언어적 상호 작용의 질적, 양적 변화가 나타났고, 더 나아가 맞춤법 의식 및 어문 규범에 대한 태도 변화, 새말의 대량 발생과 확산, 기존 단어와 문법의 변형과 재창조, 말놀이의 생활화와 재미 위주의 언어 사용 일상화 등 언어 사용과 구조에서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시-’와 관련된 ‘사물 존재’ 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일반적인 언어 환경은 화자와 청자가 제삼자(화자 자신과 청자를 포함하여)를 화제로 삼아 말을 주고받는 상황이다. 이때 행위자 인칭의 대상이 화자의 존재 대상이 된다면 ‘-시-’와 호응을 할 수 있다. 행위자 인칭의 대상은 제삼자가 주가 되지만, 청자와 겹칠 수도 있다. 다음 (13가, 나)는 전자에 해당하고, (14가, 나)는 후자에 해당한다.

(13) 가. 할아버지가 너를 사랑해 주실 거야.  
나. \*그놈이 너를 사랑하신대.

(14) 가.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나. \*철수야, 잘 지내시니?

그러나 화자와 일치하는 1인칭 행위자는 결코 존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5) 가. \*저는 그만 물러가시겠습니다.  
나. \*내가 보기에 네가 잘못된 거 같으시다.

그런데, 최근에 발달한 인터넷 환경이나 방송 매체에서의 발화 상황을 보면, 발화의 주체(speaker/locuteur)가 발화의 상대자(hearer/allocutaire)

를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구조라고 해도 사실상의 청자는 발화 현장에서 벗어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업계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구조에서의 발화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백화점의 점원이 옷을 설명하는 상황이라든가,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을 빌려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사물에 대해 주체적으로 묘사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발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16) 이 옷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옷을 입어보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자신의 모습이 어떠냐고 평가해 주길 바라는 고객을 앞에 두고 점원은 자신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입장에 서기 어렵다. 고객을 소위 ‘갑’의 위치에 두고 점원은 ‘을’의 위치에서 발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발화 환경 때문이다.

(17) 고객님, 이 옷이 좀 크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은 것 같다’라는 주관적 양태 표현은 구조적으로 당연히 1인칭 화자의 시점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이 개입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점원은 여기에도 과도하게 ‘-시-’를 붙여 쓰는 이른바 과잉 존대의 발화를 하게 된다.

(18) 고객님, 이 옷이 좀 크신 것 같으세요.

따라서 필자는 (17)과 (18)에서의 ‘-시-’의 사용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물 존대’ 현상 중에서 ‘-시-’의 오·남용

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변화된 매체 환경에서 문법 요소를 적절하게 재활용하여 사용한 경우를 구분하지는 것이다. 다음의 짝들은 일반적인 ‘-시-’의 적절한 창의적 활용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가) 계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서 ‘간접 존재’로 설명되어 온 것들이고, (나) 계열이 소위 ‘사물 존재’의 예로 비판의 대상이 된 것들인데, 잘 살펴보면 그 구조가 평행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9) 가. 선생님, 지금 계신 곳이 어디(이)세요?  
나. 선생님, 주문하신 게 김밥이세요?

(20) 가. 선생님, 품이 페더러 같으세요/품이 죽이세요.  
나. 선생님, 잔액이 만 원이세요.

(21) 가. 선생님, 얼굴이 정말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나. 선생님, 반품은 안 되시는 거 아시죠?

김은혜(2016:102)에서 대형 마트의 점원이 ‘사물 존재’ 기능으로서의 ‘-시-’를 사용한 발화로 제시한 다음과 같은 (22)의 문장도 사실은 화자가 아닌 청자를 주어로 상정한 상태에서 발화하고자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점원인 화자가 자신을 중심으로 발화했다면 (23)과 같이 되었을 것이다.

(22) 오늘 핸드크림 할인 들어가세요.  
≪ 오늘 (고객님은) 핸드크림 할인 들어가세요.

(23) 오늘 핸드크림 할인 들어갑니다.  
≪ 오늘 (우리 백화점은) 핸드크림 할인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사용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다음과 같은 문장에 나타나는 것은 오용의 사례로 고발될 만하다고 생각된다. 앞서 (18)과 관련하여 잠깐 언급한 바 있듯이, 다음과 같이 1인칭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관련 표현에서 나타나는 ‘-시-’는 과잉 존재로 보인다. 왜냐하면, ‘양태 표현’이란 것은 화자의 명제 내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에 1인칭을 높일 수 없는 ‘-시-’가 결합된다는 것은 매우 어색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화자가 청자의 시점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양태 표현은 1인칭 화자의 시각을 반영하기 때문에 어색하게 되는 것이다.

(24) 가. \*?손님, 여기서 커피를 드시면 안 되세요.

나. \*?이제 가셔도 되십니다.

다. \*?비가 올 예정이십니다.

김영일(2016)에서 다루고 있는 다음의 특이한 예문들은 ‘청자 존재’로의 ‘-시-’의 기능 변화로 설명하고자 든 예인데,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예문들은 그야말로 이상해 보인다. 일종의 말실수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돌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용법이 필자를 비롯하여 일반 언중의 문법 의식에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25) 가. 저희는 그 제품이 없으세요.

나.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 처리해 드리기가 어려우세요.

다. 저희 보험은 단순히 입원비만 보장해 드리는 것이 아니십니다.

또한 많은 논의들에서 목정수(2013)을 인용하면서 ‘-시-’가 주제어뿐만 아니라 여격어, 속격어 등도 ‘-시-’의 존재 대상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목정수(2013)의 오독이란 점을 밝히고자 한다. 목정수(2013)에서

주장한 바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주체 존재’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 이를 ‘주어 존재’라고 해야 간명해진다는 점, ‘주어’는 조사 ‘이/가’보다는 ‘은/는’으로 실현되는 빈도가 훨씬 높다는 점, 그래서 조사 ‘이/가’가 붙었다고 무조건 주어로 볼 수 없다는 점, 그러나 소위 여격 주어를 포함하여 비주격(non-nominative) 주어라고 하는 것은 ‘-시-’와 호응하기 어렵다는 점, 백번 양보하더라도 일반 주어 구문에 비해 여격 주어 구문에서의 ‘-시-’ 일치는 상대적으로 어색하다는 점 등을 분명히 하였다. 다음 두 문장의 짝을 볼 때, (가) 계열의 문장은 비문이라고는 하지 못한다고 해도 매우 어색하고, (나) 계열의 문장이 매우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국어학계에서 (가) 계열의 문장을 중심으로 ‘-시-’의 기능을 파악하는 방식보다는 (나) 계열의 문장을 올바른 문장으로 제시하고 그를 바탕으로 ‘-시-’의 본질을 규명하는 논의의 방향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 (26) 가. ??할아버지께 돈이 많이 필요하신가 보다.  
나. 할아버지께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신가 보다.
- (27) 가. ??선생님께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나. 선생님은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 (28) 가.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셨다.  
나. 할아버지는 손이 떨리셨다.
- (29) 가. ??할아버지의 코가 크시다.  
나. 할아버지는 코가 크시다.

#### 4. 규범 문법 대 기술 문법

언어 현상을 두고 문법가들의 태도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어 왔다. 언어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입장에서는 언어의 규칙을 딱 정해 놓고 그를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그와 별도로 언어는 변하기 마련이고, 변화가 있을 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 그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입장도 있다. 이때는 언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른바 규범 문법(prescriptive grammar)과 기술 문법(descriptive grammar)의 대립 구조이다. 영어의 다음 현상을 두고 벌인 논쟁이 유명하다.

(30) 가. It's me.

나. It's I.

규범주의자들은 (30나)의 문장이 맞는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I'는 주격형이고 'me'는 대격형이므로 주격보어 자리에는 주격형이 쓰여야 한다는 것을 든다. 그래서 <왕과 나>(1956)란 영화의 제목도 'The King and I'로 정해졌다. 그러나 실제로 말뭉치(corpus)를 조사해 보면, 이 주격보어 자리에 소위 주격형이 나타나는 예는 거의 없다.

그리고 실제로 대명사의 자립 형식은 다 대격형이다. 영화 제목 <그녀(her)>(2013)도 그렇다. 만약에 남자 가상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를 만든다면 그 제목은 당연히 'he'가 아니라 'him'이 될 것이다. 이는 영어의 대격형이 소위 약세형과 강세형의 두 계열로 나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의 소위 주격형, 대격형이라는 것은 일종의 접어(clitic)로서 굴절어미가 다 소실된 영어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문법 요소로 쓰이는 것이고, 대명사의 명사 차원에서의 자립 형식은 강세형 대격형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기술 문법가라면 밝힐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어와의 비교를 통해 금방 알 수 있다.

(31) 가. I - me - ME  
나. je - me - MOI

(32) 가. It's ME.  
나. C'est MOI.

본고는 규범주의자들의 이야기도 경청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술주의자의 입장에서 한국어의 ‘-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 그것의 본질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것과 관련하여 수년 전에 네티즌들의 권상우 비난 악플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건의 발단은 배우 권상우가 일본 기자단과 공식 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우리나라’가 아닌 ‘저희 나라’라고 했다고 해서 왜 ‘한국’을 낮춰서 말했느냐, 그것도 일본에서 라고 하면서 권상우를 밀어붙인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필자는 누리꾼의 국어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목정수, 2014b:341-351). 한국어 사용자 권상우는 ‘한국’을 낮춰 말하려고 한 의도가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았고, 권상우가 ‘저희 나라’라고 한 것은 공식적인 기자 회견장에서 말의 상대가 되는 기자단에 대해 권상우 자신을 낮추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닌 ‘저희 나라’라고 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것이 ‘우리 X’와 ‘저희 X’ 명사구 문법의 정수(精髓)인 것이다. 이것도 규범 문법가와 기술 문법가의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 5.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이른바 ‘사물 존대’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규범주의자가 아닌 기술주의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예와 다양한 논의들을 검토해 보았다. 분명하게 결론지을 수 있는 사항만을 간추려 제시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아무리 ‘-시-’가 오·남용된다 하더라도 1인칭 주어를 높이는 데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소위 ‘백화점식 경어법’이라고 해서 ‘-시-’의 오용을 지적하고 있는 배상복·오경순(2012:56-57)에서 본질을 호도하는 언급이 있었다. 서비스센터 직원이 냉장고 수리를 부탁한 주인에게 “모터가 망가지셨습니다.”라고 한 것은 ‘모터’라는 사물을 존대한 것이라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면 자신들도 냉장고가 고장 나면 서비스센터에 전화해서 “냉장고가 고장 나셨습니다.”라고 할지도 모르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 직원이 수리를 의뢰한 고객에게 “모터가 망가지셨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만, 수리점에 전화해서 의뢰인 자신의 냉장고가 고장 난 것을 알리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냉장고가 고장 나셨습니다.”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배상복·오경순(2012)에서 우려한 “우리 집 냉장고가 고장 나셨습니다.”와 같은 문장은 한국인의 입에서 발화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이는 분명히 ‘사물 존대’ 현상에 대한 오진이다.

둘째, 이른바 ‘사물 존대’ 표현 가운데 그 원리를 인정할 만한 것 대부분은 소위 이중 주어 구문에서의 제1명사구에 대한 존대 현상과 동일한 원리로 설명된다. 따라서 ‘사물 존대’ 현상은 언론이나 학계에서 요란하게 떠든 것에 비해 그리 크게 우려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33) 가. 우리 할머니는 얼굴이 아직도 예쁘십니다.  
나. 선생님, 지금 위치가/계신 곳이 어디세요?

(34) 가. 네, 고객님, 환불이 안 되십니다.  
나. 고객님, 아직 커피가/주문하신 게 안 나오셨습니까?

셋째, ‘-시-’의 오·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화자의 주관적 표현을 반영하는 양태 어미나 양태 구성에 개입하는 경우이다. 물론 이도 화자의 청자로서의 시점 이동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언어 구조상 이는 ‘-시-’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35가)보다는 (35나)가 올바른 표현이다.

(35) 가. ??고객님, 여기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시면 안 되십니다/되세요.  
나. 고객님, 여기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돼요.

마지막으로, 소위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 ‘-시-’를 문법에서 다룰 것인가, 사회언어학적으로 다룰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시-’를 문법 요소의 하나로 보고 이를 통사론, 즉 문법에서 다루는 것이 일차적이고, 그것의 변용 현상을 이차적으로 사회언어학적 또는 화용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언어는 변하기 마련이다. 변화의 원인은 언어 내적 요인과 언어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언어 외적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체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사물 존대’ 현상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원인이 매체 환경의 변화 때문인 것이지, 언어 내적으로 ‘-시-’의 기능 변화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흔들림 없는 소견이다.

##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2015),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 김영일(2016), “청자 존대 ‘-시-’의 종합적 검토”, 《언어과학》 23-1, 한국언어과학회, 53-87쪽.
- 김은혜(2016), “한국어 선어말 어미 ‘-시-’의 사물 존대 기능: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판매원의 발화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24-1, 한국사회언어학회, 91-113쪽.
- 목정수(2013), “선어말어미 ‘-시-’의 기능과 주어 존대”, 《국어학》 61, 국어학회, 63-105쪽.
- \_\_\_\_\_(2014a), “한국어 서술절 비판: 통사단위 설정을 중심으로”, 《현대문법연구》 76, 현대문법학회, 101-126쪽.
- \_\_\_\_\_(2014b), 《한국어, 그 인칭의 비밀》, 태학사.
- \_\_\_\_\_(2016), “한국어의 진성 주어를 찾아서”, 《어문연구》 17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7-46쪽.
- 배상복·오경순(2012), 《한국인도 모르는 한국어: 쉽고 재미있게 익히는 우리말》, 21세기북스, 56-57쪽.
- 임동훈(2000), 《한국어 어미 ‘-시-’의 문법》, 태학사.
- \_\_\_\_\_(2011), “담화 화시와 사회적 화시”, 《한국어 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39-63쪽.
- 이정복(2006), “상황 주체 높임 ‘-시-’의 확산과 배경”, 《언어과학연구》 55, 언어과학회, 217-246쪽.
- \_\_\_\_\_(2017), 《사회적 소통망의 언어문화 연구(SNS, 21세기 언어의 화두)》, 소통.